

## 미국 특허공보도 이제 한글로 보세요!

- 특허청, 미국 특허공보 한글번역문 자료(데이터) 1,480만 건 무료 개방 -
- 특허청 자체 개발 인공지능 번역체계 활용...특허분야 번역 최적화 -
- 내년 중국 특허공보 한글번역문 자료(데이터) 3,800만 건 추가 개방 예정 -

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8월 21일(월)부터 미국 특허공보에 대한 한글번역문자료(데이터)를 국내·외 특허자료(데이터) 개방 기반인 키프리스플러스\*(KIPRIS<sup>Plus</sup>)를 통해 민간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.

\* 특허청의 자료(데이터) 개방 기반으로(plus.kipris.or.kr) 국내·외 주요 산업재산권(특허, 상표, 디자인 등) 공보와 행정정보 등의 자료(데이터) 상품을 제공

### <미국 특허자료(데이터) 한글번역문 1,480만 건 개방>

이번에 개방하는 자료(데이터)는 미국특허청이 197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발간한 미국 특허공개공보와 등록공보에 대한 한글번역문 총 1,480만 건이다.

개방된 자료(데이터)를 활용하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영어로 된 방대한 미국 특허공보를 한글로 쉽게 검색해 볼 수 있고, 가치평가 등 특허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.

또한 지식재산 관련 기업들은 미국 특허자료(데이터)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### <특허청 자체 개발 인공지능(AI) 번역체계 활용>

이번 자료(데이터)는 특허청이 2021년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(AI) 영한 번역체계를 활용해 구축한 것이다.

특허청은 인공지능(AI)이 특허 분야의 어려운 전문용어와 문장구조를 잘 이해해 번역할 수 있도록 특허공보와 심사·심판 문서 등에서 자료(데이터)를 구축·학습시켜 번역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.

## <중국, 일본 특허공보 번역문도 순차 개방 예정>

이번 자료(데이터) 개방은 지난해 12월 유럽 특허공보 한글번역문 자료(데이터) (500만 건) 개방에 이은 두 번째이며, 내년에는 중한 인공지능(AI) 번역체계를 활용해 중국 특허문헌에 대한 한글번역문 약 3,800만 건도 구축해 개방할 예정이다.

또한 순차적으로 일한 인공지능(AI) 번역체계도 개발해 약 2,600만 건에 달하는 일본 특허문헌에 대한 한글번역문도 구축해 개방해 나갈 계획이다.

특허청 김기범 산업재산정보국장은 “특허청은 누구나 전 세계 특허정보를 언어장벽 없이 한글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, 앞으로 인공지능(AI) 번역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개방하는 자료(데이터)의 범위와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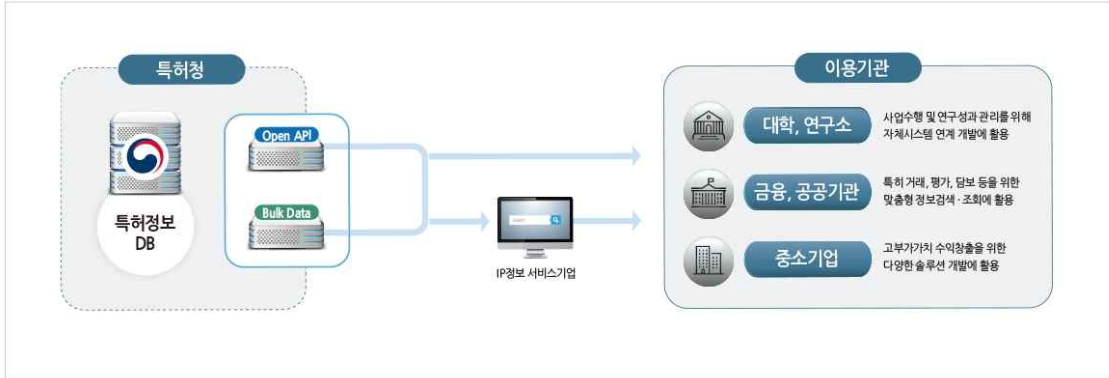
### ※ 붙임 : 키프리스플러스 서비스 소개

담당 부서	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자료(데이터)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곤희 (042-481-5134)
		담당자	사무관	권미선 (042-481-3570)



■ 서비스 소개

- 특허청이 개방중인 모든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수 있는 BULK DATA, OPEN API 방식의 정보제공 서비스



■ 활용분야



■ 제공 범위

